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인식: 주체성과 판단자 성별의 효과*

정 찬 영¹⁾ 김 현 정¹⁾ 김 태 경²⁾ 박 상 희^{1)†}

¹⁾충북대학교 심리학과

²⁾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인 모습을 보일 때 피해 주장 여성에 더 부정적인 판단을, 가해 혐의 남성에게는 더 너그러운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이 현상은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이 피해자다움과 여성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하여 이들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고, 더불어 남성 참가자들은 여성 참가자들보다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을 덜 긍정적으로 볼 것으로 판단하여 참가자 성별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했다. 연구 결과, 가설과 달리 참가자들은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으로 묘사된 경우 그 여성을 덜 비난하고, 더 긍정적이고 더 진실되어 보인다고 평가하였으며, 가해 혐의 남성에게 유죄와 형량을 더 주었다. 하지만 여성 참가자들보다 남성 참가자들이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을 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예측한 참가자 성별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한편 매개효과의 경우 지각된 진실성에서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참가자들은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이 더 피해자답지 않다고 보았고 그것이 더 낮은 지각된 진실성을 예측했다. 또한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하여 지각된 여성성이 낮다고 여겨질수록 남성 참가자들은 피해 주장 여성 비난을 더 하였고 여성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인상 평가를 더 하였다.

주요어 : 성폭력, 피해자다움, 피해자 비난, 주체성, 성차

* 이 논문은 충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2018-2019)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 박상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2864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대로 1

E-mail : sangheepark@chungbuk.ac.kr

성폭력 피해자¹⁾들은 사건 이후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나, 피해의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인식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겪는다(권인숙, 2015). 많은 연구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자답지 않게 행동할 경우 ‘진짜 피해자가 아닐 것이다’, ‘당할 만 했다’는 등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밝혔다(김민정, 양정운, 2015; 허민숙, 2017; 허선주, 조은경, 2012).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피해자다움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 중 하나는 피해자가 약하고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Buddie & Miller, 2001).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이 피해자답지 않게 보이도록 할 특성으로서 ‘주체성’을 상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경우 제3자는 그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반대로 가해 혐의 남성에 대해서는 더 너그러운 판단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 참가자들에 비해 남성 참가자들에게 더 두드러질 것이며, 또한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의 행동이 피해자다움과 여성성이라는 두 고정관념 모두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피

해자답지 않게 행동할 때 사회적 인식과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여, 성폭력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여러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성별 관련 편향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기보다는 성폭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주체성, 비난, 진실성, 형량 판단 등 맥락에 직접 연관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현실 속에서 성폭력 사건을 접하는 일반인들이 관련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다움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고발 후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는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자 유발론’이 제기되거나(권인숙, 2015) 거짓으로 사건을 꾸며냈다는 의심을 받는 비율이 더 높다(허민숙, 2016).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피해자답게 행동했는지가 ‘진짜 피해자’인지 아닌지, 나아가 유무죄 판단에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권인숙, 2015).

피해자다움이란 (대개 성폭력 사건의 맥락에서) 피해자라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성격, 행동, 생각 등을 뜻한다. 피해 당시 상황과 관련된 피해자다움의 예시로는 피해자가 ‘반항을 했을 것’(Cook, David, & Grant, 2001),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을 것’(Stewart, Dobbin, & Gatowski, 1996), ‘피해를 입고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Jordan, 2001) 등이 있다. 한편 Buddie와 Miller(2001)의 연구에서는 진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지 참가자들에게 나열하

1)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진위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중립적인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과 ‘가해 혐의 남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에서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인 점을 감안하여(여성가족부, 2016; 이하나, 2019; 한국성폭력상담소, 2017) 실험 시나리오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여성으로, 가해 혐의자는 남성으로 고정하였다.

도록 한 뒤 응답을 종합한 결과, 참가자들은 피해자들이 ‘두려워하는’, ‘약한’, ‘상처받은’, ‘여성’, ‘화난’, ‘부끄러운’, ‘남을 믿지 못하는’, ‘술을 자주 먹는’, ‘스스로를 비난할 것’, ‘매력 있는’, ‘이익을 취하는’, ‘강한’, ‘인생이 바뀐’, ‘어린’, ‘옷이 문란한’, ‘창녀’, ‘먼저 요구했을 것’, ‘순진한’, ‘우울한’, ‘부주의한’ 등의 특징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중 ‘두려워하는’, ‘상처받은’ 등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일 것 같은 특징들인 반면 ‘약한’, ‘여성’, ‘매력 있는’, ‘어린’, ‘옷이 문란한’ 등의 특징은 참가자들이 사건 이전부터 특정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판단자들은 피해자다움에서 벗어나는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들에게 더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는데(Schuller, McKimmie, Masser, & Klippenstine, 2010), 심지어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어서 피해자다움이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Schuller 등(2010)의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이 성 고정관념(아이를 집에 방치하지 않음)과 피해자 고정관념(피해 당시 가해 혐의자에게 신체적 저항을 함), 전형적인 피해자 감정(침착하지 않고 울먹이거나 화를 냄)에서 벗어났을 경우 진실성이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Winkel과 Koppelaar의 연구(1991)에서는 참가자들이 여성이 흐느끼면서 떨리는 목소리를 내며 피해를 주장할 때, 침착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였을 때보다 여성의 책임을 더 적게 보고, 여성을 더 믿음직스럽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 연구에서는 피해 주장 여성이 가해 혐의 남성에게 반항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피해자답지 않아 보이는 경우 가해 혐의

남성에 대한 비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Bongiorno, McKimmie, & Masser, 2016), 피해 주장 여성이 신체적 고통을 겪지 않았다고 느껴졌을 때 진짜 피해자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McGregor, Wiebe, Marion, & Livingstone, 2000).

주체적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

피해자다움은 일종의 고정관념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이 피해자다운 특성인가에 대한 내용은 사람들마다 차이를 보이며 특성들 간에 서로 모순적인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약한’(Buddie & Miller, 2001; Christie, 1986)의 특성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 특성들에 상반되는 특성을 보이는 사람은 피해자답지 않다고 판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특징들과 상반되는 특성에는 ‘외부의 압박을 잘 견뎌내는’,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이야기하는’과 같은 특징이 포함되며(Spence, Helmreich, & Holahan, 1979) 이것이 ‘주체성’이라는 개념으로 대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다운 성폭력 피해자는 주체적이지 않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주체성(agency)은 개인이 사회에서 자신의 권력을 지킬 수 있는 힘에 관련된 특질로(Wiggins, 1991), 리더십, 권력, 전문성, 성공,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다. 이러한 특질은 친밀함과 연대 등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공동체성(communality)과 함께 인간이 가지는 특징을 분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차원이다(Bakan, 1966). Spence, Helmreich와 Holahan(1979)이 개

발한 성역할 정체감 척도(Extended Personality Attribution Questionnaire; EPAQ)에서는 주체성을 ‘자신감이 있는’, ‘능동적인’, ‘중압감을 잘 견디는’, ‘적대적인’, ‘의존적이지 않은’ 등의 하위 특질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상반되는 특징들로 예상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자가 약하고, 사건 이후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며, 많은 감정적 및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무섭고 두려움에 떨며, 무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Buddie & Miller, 2001; Christie, 1986; Krulowitz, 1982; Meston, 1999). 성폭력 사건이 실제 일어난 사건인지, 혹은 피해 주장 여성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를 피해자다움 여부로 판단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권인숙, 2015), 피해 주장 여성이 피해 이후에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판단자는 피해 주장 여성이 진짜 피해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어야 하고,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지 못해야 ‘진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라고 인식했다(Calhoun, Cann, Selby, & Magee, 1981; Schneider, Ee, & Aronson, 1994). 이는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경우 피해자답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비 피해자로 잘못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결국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은 비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에 비해 더 비난받게 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순결을 잃었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시선을 받기도 한다(Kalu, 2004). 여성들은 성적인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성적인 접촉을 피하여 순결을 유지하고 성적으로 억압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받게 되는데(Valenti, 2009), 이는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현상과도 연결된다(Benedict, 1993; Thapan, 1997).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한 이후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도 한다(Amaka-Okafor, 2013). 이 때문에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행동할 경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 피해자답지 않다고 인식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 피해자가 여성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 부정적인 평가의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여성 성폭력 피해자가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나가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더 비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Masser, Lee, & McKimmie, 2010). 특히 주체성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특질로(Spence et al., 1979), Terman과 Miles(1936)는 남성성은 주체성과, 여성성은 공동성과 연결시켜 정의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여성들은 남성성과 연결되는 주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을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여성으로 인식되어 비주체적인 여성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주체적인 여성에게 더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으며(Butler & Geis, 1990; Prentice & Carranza, 2002;

Koch, 2005), 암묵적으로도 더 부정적인 태도를 표현하였고(Rudman & Kilianski, 2000), 채용 상황에서 비주체적인 여성보다 덜 채용하려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udman, Moss-Racusin, Phelan, & Nauts, 2012). 이러한 맥락과 일치하게 Capezza와 Arriaga(2008)의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전통적 여성상과 먼 특성을 가진 여성일 경우, 따뜻함보다 주체성이 부각되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결국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자다움이나 여성성에서 벗어난 특질이라는 점과 별개로, 주체성은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실제로 주체성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질로 여겨진다(Trapnell & Paulhus, 2012). 따라서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긍정적인 인상을 주어 피해자답지 못함에서 오는 부정적인 평가를 상쇄해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태도가 피해 정황이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Petty, Briñol, & Tormala, 2002). 아울러 주체성을 가진 사람은 권력이 높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Argyle, 1994), 이러한 이유로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방향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피해자 비난에서의 성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rubb & Harrower, 2008). 연구들에 따르면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에

더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고(Johnson, Jackson, & Smith, 1989; Kleinke & Meyer, 1990) 여성의 특정한 특징들이 성폭력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을 더 많이 보이는 반면 여성들은 피해자에게 더 공감하고 동일시하여 가해자를 더 비난하였다(Calhoun, Selby, & Warring, 1976). 선행 연구들은 남성들이 성폭력 피해자를 더 비난하는 경향이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더 감정 이입하고 동정심을 느끼는 현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Bongiorno, Langbroek, Bain, Ting, & Ryan, 2020). Workman과 Freeburg(1999)의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었을 경우에 가해자를 덜 비난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남성들이 스스로를 가해자와 비슷하다고 여길수록 증가했다.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의 주체성을 독립 변인으로서 조작하기 때문에 판단자의 성별이 피해 주장 여성의 주체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성들은 특히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때 여성들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근거가 있다. 남성들은 여성이 주체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으면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에 더해 그 여성이 남성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 여성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될 수 있다(Rudman & Phelan, 2008). 비슷한 맥락에서 Howard(1984)의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적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체적인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을 보았을 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다르다는 생각에서 드

는 당혹감이 여성보다 더 커질 수 있으며, 이 결과 피해 주장 여성을 더 비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성폭력 피해자가 전통적인 여성상에 따를 것이라는 기대를 더 하기 때문에,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 이 기대에서 벗어나는 경우 이 여성을 여성적이지도 않고 피해자답지도 않다고 여기게 되며, 그에 따라 그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문제

2013년 법정 증언 중 피고측 변호인의 모욕적인 질문에 노출된 성폭력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등(김훈남, 2013), 성폭력 피해자는 1차 피해-즉 범죄 피해 자체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다양한 2차 피해에 노출됨으로써 상당한 고통을 받는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이후 심리적으로 회복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폭로 이후 주변의 반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해자다운지 검증하려는 시선이 2차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권해수, 2007).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성공적인 법적 처벌을 가능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인식과 달리, 현실에서 피해자는 폭로하는 순간부터 범죄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며(정로사, 김태경, 2017), 특히 사건 전, 중, 후에 피해자답게 행동했는지가 중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고 ‘피해자다움’과 대립되는 개념인 주체성이 판단자들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판단자들이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경우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더 비난을 하고 더 부정적인 인상을 받으며 덜 진실하게 볼 것으로 예상했고, 가해 혐의 남성에게는 무죄 판단을 더 많이 하고 더 낮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성폭력 피해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경우 덜 피해자답게 보임과 동시에 덜 여성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남성 참가자가 여성 참가자보다 가해 혐의 남성과 더 동일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성 참가자가 여성 참가자보다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을 더 비난하고, 더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며, 덜 진실하다고 평가할 것이며, 가해 혐의 남성에게 무죄와 낮은 형량 판단을 더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종속변인으로 피해 주장 여성 비난과 더불어 인상 형성과 진실성까지 포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 주장 여성 비난 종속변인에서는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을 비난하는 것을 지양하는 사회적 바람직성이 영향을 주어 참가자들이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비난을 직접적으로 표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해 주장 여성 비난과 더불어 더 간접적인 방식으로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상 평가’를 종속변인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여러 가지 비난 중 한 가지가 진실성에 대한 의심(추지현, 권인숙, 2017)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지각된 진실성을 또 다른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이 거

것으로 사건을 꾸며 이익을 취하거나 무고한 가해 혐의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의심(허민숙, 2016)이 더 많이 들어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에게 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비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 주장자에 대한 평가는 가해 혐의자에 대한 판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Calhoun et al., 1976; Workman & Freeburg, 1999) 피해 주장자가 피해자답지 않아 보일 경우, 가해 혐의를 받은 사람이 무고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거나 가해를 했어도 책임이 피해 주장 여성에게 있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으로 피해에 대한 주장을 한다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가해 혐의 남성이 무죄나 더 낮은 형량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처벌의 판단은 실제 재판 상황에서의 법적 판단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판단은 여론을 형성하여 결국 간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의 법 감정에 의한 판단을 알아보는 것은 실제 법적 판단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론

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난 정도, 인상 평가, 진실성, 가해 혐의 남성에 대한 유무죄 및 형량 판단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피해 주장 여성에게 요구하는 피해자다움 특질이 그들에 대한 비난과 인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조명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사건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판단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형성된 인상이 법적인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가상의 기사를 여성과 남성 참가자에게 읽게 하고, 피해 주장 여성의 행동에서의 주체성을 조작하였다. 이후 피해 주장 여성과 가해 혐의 남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하여 그 응답으로부터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가설 1-1.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경우,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보다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비난이 더 심하고,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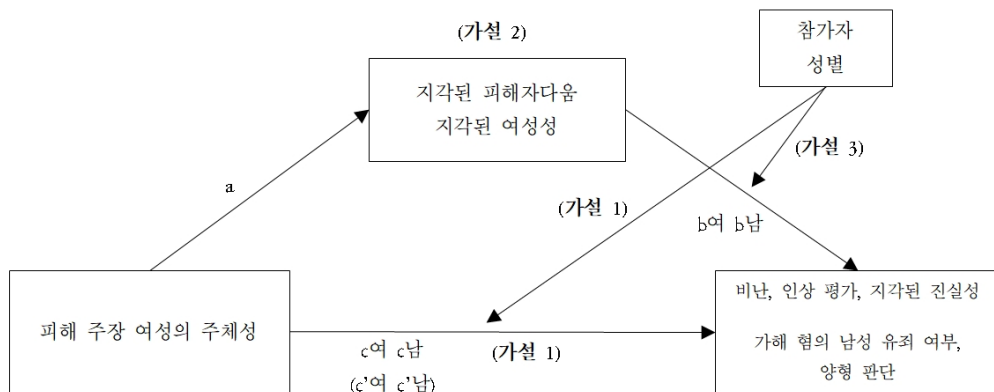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에서 예상하는 연구 모형

주. 알파벳은 표 3의 회귀계수를 나타내는 글자들이다.

상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더 진실성이 낮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남성 참가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질 것이다.

가설 1-2.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경우,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보다 가해 혐의 남성이 무죄일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더 강할 것이고, 형량을 더 적게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남성 참가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질 것이다.

가설 2-1. 피해 주장 여성의 주체성이 그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효과는 지각된 피해자다움과 지각된 여성성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체적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피해 주장 여성의 피해자다움과 여성성을 더 낮게 평가할 것이고, 그럴수록 피해 주장 여성의 비난을 더 많이 하고 그에 대해 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며 진실성을 덜 지각할 것이다.

가설 2-2. 피해 주장 여성의 주체성이 가해 혐의 남성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효과는 지각된 피해자다움과 지각된 여성성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체적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피해 주장 여성의 피해자다움과 여성성을 더 낮게 평가할 것이고, 그럴수록 가해 혐의 남성을 무죄라고 판단할 경향이 더 강할 것이고 그의 형량을 더 적게 판단할 것이다.

가설 3-1. 가설 2-1의 매개효과는 참가자 성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다움과 여성성이 덜 지각될수록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비난이 더 심하고, 인상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진실성이 더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남성 참가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질 것이며, 이는 주체성이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효과가 참가자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 것(가설 1-1)을 설

명할 것이다.

가설 3-2. 가설 2-2의 매개효과는 참가자 성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다움과 여성성이 덜 지각될수록 가해 혐의 남성이 무죄일 것으로 판단하고, 형량을 더 적게 판단하는 경향은 남성 참가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질 것이며, 이는 주체성이 가해 혐의 남성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효과가 참가자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 것(가설 1-2)을 설명할 것이다.

방 법

참가자

한국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심리학과 교양 및 전공 수업을 듣는 학부생 251명(여성 129명)이 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1.01세($SD = 2.78$)였으며, 참가자들은 수업 과제의 일환으로 연구에 참가하였다.

절차

연구의 모든 절차는 심리학 실험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Inquisit 4.0(2016)을 통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이 연구가 타인의 행동에 대한 묘사가 대상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 이후 참가자들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묘사하는 가상의 기사를 읽고, 이후 기사에 등장하는 여성과 그 여성에 의해 가해 혐의자로 지목된 남성에 대한 질문들에 답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매개변인인 지각된

피해자다움 및 지각된 여성성에 관련된 질문들과 종속변인인 피해 주장 여성 비난, 인상 평가, 지각된 진실성에 관련된 질문들이었고, 참가자들은 기사에서 언급된 가해 혐의 남성이 유죄인 것 같은지, 유죄라면 얼마의 형량을 받아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하였다. 모든 기사 또는 질문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제시된 질문에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해 답하였다. 기사 관련 질문들에 응답한 후 참가자들은 자신의 성별, 연령, 국적 등의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응답하였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참가자들에게 실험의 진짜 의도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끝으로 실험이 모두 종료되었다. 연구의 소요시간은 30분 내외였으며, 연구의 절차와 측정 도구는 연구가 수행된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실험 조작

참가자들은 두 개의 조건(주체적 여성 조건/비주체적 여성 조건) 중 하나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어 가상의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읽었다. 주체적 여성 조건의 참가자들은 기사에 등장하는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이현주 씨’)이 당당하고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읽은 반면, 비주체적 여성 조건의 참가자는 기사의 여성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묘사된 기사를 읽었다. 이 두 조건의 기사에서 묘사하는 주체적이거나 주체적이지 않은 행동들은 성역할 정체감 척도(EPAQ; Spence et al., 1979)의 주체성 속성 중 본 연구의 저자들이 가장 주체적이거나 가장 비주체적인 속성으로 선정한 특성들(‘자신감 있는’/‘자신감이

없는’, ‘능동적인/수동적인’, ‘중압감을 잘 견디는’/‘중압감에 약한’, ‘적대적인’/‘적대적이지 않은’, ‘의존적이지 않은’/‘매우 의존적인’)을 이용해 구성하였다. 주체적 여성 조건에서 묘사된 여성은 직접 인터뷰를 요청하고, 당당하고 강한 어조로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단호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묘사되었다. 비주체적 여성 조건에서는 주변 사람의 설득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불안하고 동요하는 어조로 이야기하며, 긴장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묘사된 내용 전문은 저자들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구성된 기사의 주체적/비주체적 행동 묘사가 실제 그 속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42명(여성 25명)의 성인이 사전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무선적으로 한 조건의 기사를 읽은 뒤 기사 속 여성의 행동이 얼마나 자신감 있고, 능동적이고, 중압감을 잘 견디고, 의존적이지 않고, 호의적이고, 주체적이고, 피해자답게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했다. 호의성($t = .66, p = .51$)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조건 간 차이는 예측된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모든 $t > 3.06$, 모든 $p < .01$.

기사를 제시한 후, 기사를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참가자를 제외하기 위해 주의 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의 점검의 문항은 제시된 기사에 따라 이현주 씨가 인터뷰 자리에 누구와 함께 참석했는지, 일상 생활에 어떤 변화를 겪는지 묻는 객관식 문항이었고, 이 두 질문에서 하나라도 틀린 참가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 매개변인인 지각된 피해자다움, 지각된 여성성, 그리고 종속변인 중 피해 주장 여성 비난, 인상 평가, 지각된 진실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모두 연구자가 제작한 문항으로,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7점 ‘매우 동의한다’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했다. 가해 혐의 남성에 대한 종속변인인 유무죄 및 형량 판단은 주관식으로 평가되었다.

지각된 피해자다움(매개변인 1)

지각된 피해자다움의 문항들은 이를 ‘대상이 얼마나 전형적인 피해자처럼 보이는가’로 조작적 정의한 후 그에 해당하는 문항을 연구자들이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기사에서 묘사된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이 얼마나 피해자답게 지각되는지에 관련된 진술문은 총 세 개의 문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현주 씨는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현주 씨가 보이는 행동은 대개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행동과 비슷해 보인다.’, ‘이현주 씨의 모습은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이는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 측정된 지각된 피해자다움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지각된 여성성(매개변인 2)

지각된 여성성에 관련된 진술문들은 ‘대상이 여성스럽게 느껴짐’의 조작적 정의 아래 제작되었다. ‘이현주 씨는 여성적인 사람으로 느껴진다.’, ‘사람들은 이현주 씨의 행동이 여성스럽다고 인식할 것 같다.’, ‘사람들은 이현주 씨가 여성스럽다고 생각할 것 같다.’의 세

문항이었다. 지각된 여성성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피해 주장 여성 비난(피해 주장 여성 종속변인 1)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비난을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에 책임이 있음’으로 조작적 정의하고, Bryant와 Spencer(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문항을 제작, 사용하였다. 피해 주장 여성 비난과 관련된 진술문은 총 네 개 문항으로 ‘이현주 씨는 이 사건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을 것 같다.’, ‘이현주 씨는 성폭력을 피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사람들은 이현주 씨가 이번 사건에서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사람들은 이현주 씨가 이 사건이 발생하는 데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였다. 이 총 네 개의 문항 중 두 번째 문항은 나머지 문항과의 상관이 낮고(모든 $r < .03$) 내적 합치도도 낮아 두 번째 문항을 제거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두 번째 문항을 뺀 나머지 피해 주장 여성 비난 세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인상 평가(피해 주장 여성 종속변인 2)

인상 평가의 문항들은 ‘피해 주장 여성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가짐’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였다. 기사에서 묘사된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인상을 평가하는 진술문은 ‘나는 이현주 씨에게 그다지 호감이 가지 않는다.’, ‘나는 이현주 씨의 행동이 조금 탐탁지 않게 느껴진다.’, ‘나는 이현주 씨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다.’, ‘이현주 씨에게 다가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의 총 네 개 문항이었다. 인상 평가의 네 문항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83이었다.

지각된 진실성(피해 주장 여성 종속변인 3)

지각된 진실성의 문항들은 ‘피해 주장 여성
의 진술이 진실되게 느껴짐’의 조작적 정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지각된 진실
성의 세 문항은 ‘이현주 씨의 주장은 진실되
게 느껴진다.’, ‘이현주 씨가 주장하는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을 것 같다.’, ‘이현주 씨의 말은
믿음이 간다.’의 세 문항이었다. 지각된 진실
성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86이었다.

가해 혐의 남성의 유무죄, 적정 형량(가해 혐의 남성 종속변인 1, 2)

참가자들은 기사에 나온 사건의 가해 혐의
자로 지목된 남성이 유죄인 것 같은지 아니면
무죄인 것 같은지, 유죄라면 얼마의 형량이
적정할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였다. 참가자들
은 제시된 글 상자에 가해 혐의 남성이 무죄
라고 생각하면 무죄라고 기입하고, 유죄라고
생각할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형량을 0년

0개월의 단위로 기입하였다. 이후 무죄는 0개
월, 유죄는 0년 0개월을 개월 수로 코딩(예를
들어 3년 2개월의 응답은 38개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은 표 1에, 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시행된 모든 분석에는 SPSS
23.0이 사용되었다.

피해 주장 여성 평가: 피해 주장 여성 비난,
인상 평가, 지각된 진실성에 대한 주체성과
참가자 성별의 효과(가설 1-1)

피해 주장 여성의 주체성과 참가자 성별에
따라 피해 주장 여성 비난, 인상 평가, 지각된
진실성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2(주
체성: 주체적 대 비주체적) x 2(참가자 성별:
남성 대 여성) 이원 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과 평균, 표준편차

변인	1	2	3	4	5	6
1. 지각된 피해자다움	-	.281**	.099	-.079	.023	-.021
2. 지각된 여성성		-	-.010	-.072	.024	-.034
3. 피해 주장 여성 비난			-	-.388**	-.205**	-.179**
4. 인상 평가				-	.575**	.410**
5. 지각된 진실성					-	.405**
6. 가해 혐의 남성 형량(개월)						-
평균	3.60	3.30	3.24	5.12	4.77	43.52
표준편차	1.67	1.25	1.29	1.20	1.06	40.56

** $p < .01$.

표 2. 주요 변인들의 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

	주체적		비주체적	
	여성 참가자	남성 참가자	여성 참가자	남성 참가자
종속변인				
피해 주장 여성 비난	3.06 _a (1.38)	2.99 _a (1.21)	3.60 _b (1.27)	3.33 _{ab} (1.24)
인상 평가	5.68 _a (1.03)	4.91 _b (1.07)	5.03 _b (1.33)	4.76 _b (1.15)
지각된 진실성	5.27 _a (0.97)	4.38 _c (0.90)	4.86 _b (1.11)	4.47 _c (1.01)
가해 혐의 남성인 유죄 판단 비율(%)	98.39%	69.39%	84.00%	67.86%
가해 혐의 남성 형량	57.61 _a (40.29)	33.19 _b (39.64)	44.96 _{ab} (38.76)	34.62 _b (39.43)
매개변인				
지각된 피해자다움	2.27 _a (0.93)	2.47 _a (1.01)	5.03 _b (1.07)	4.79 _b (1.27)
지각된 여성성	2.93 _a (1.03)	3.04 _a (0.94)	3.27 _a (1.45)	3.97 _b (1.28)

주. 알파벳 아래 첨자가 서로 다른 것은 같은 행의 점수 간 실시된 사후분석 결과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을 의미함.

실험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주의 점검에 실패한 25명을 제외한 226명(여성 117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피해 주장 여성 비난

먼저, 참가자들은 예상과 반대로 기사의 여성 주인공이 주체적일 때 주체적이지 않았을 때보다 피해 주장 여성을 덜 비난하였다, $F(1, 222) = 6.649$, $p = .011$, $\eta_p^2 = .029$ (그림 2). 참가자 성별에 따라서는 기사 속의 여성 인물에 대한 피해 주장 여성 비난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222) = 0.992$, $p = .320$, $\eta_p^2 = .004$. 피해 주장 여성의 주체성과 참가자 성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 222) = 0.343$, $p = .559$, $\eta_p^2 = .002$. 이후 사후 분석으로 각 참가자 성별 조건에서 주체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Bonferroni 교정법으로 단순주효과를 살펴본 결

과, 여성 참가자들은 인물이 주체적으로 행동했을 때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피해 주장 여성의 비난을 덜 하였지만, $p = .024$, 남성 참가자의 경우 주체적으로 행동한 인물과 주체적이지

피해 주장 여성 비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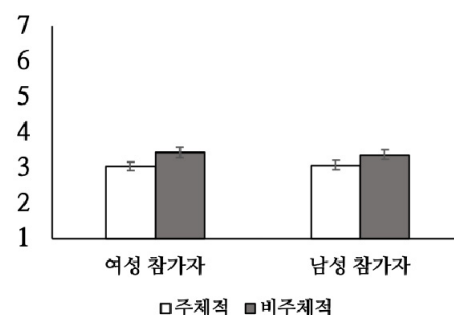


그림 2. 주체성과 참가자 성별에 따른 피해 주장 여성 비난

주. 오차 막대는 표준 오차를 의미함.

않은 인물에 대해 피해 주장 여성 비난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167$. 또한 주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참가자가 여성일 때와 참가자가 남성일 때 피해 주장 여성 비난에 차이가 없었으며, $p = .769$, 주체적이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도 참가자가 여성일 때와 남성일 때 피해 주장 여성 비난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270$.

인상 평가

분석 결과, 참가자들은 예상과 반대로 기사 속 여성이 주체적일 때 주체적이지 않을 때보다 더 긍정적인 인상평가를 하였다, $F(1, 222) = 6.931, p = .009, \eta_p^2 = .030$ (그림 3). 또한 여성 참가자가 남성 참가자보다 기사 속 여성의 인상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F(1, 222) = 11.663, p = .001, \eta_p^2 = .050$. 주체성과 참가자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222) = 2.731, p = .10, \eta_p^2 = .012$.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여성 참가자들은 유의한 수준으로 주체적인 인물을 주체적이지 않은 인물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p =$

.002, 남성 참가자의 경우 주체적으로 행동한 인물과 주체적이지 않은 인물에 대한 인상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496$. 또한 주체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여성 참가자들이 남성 참가자들에 비해 기사 속 여성의 인상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p < .001$, 주체적이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여성일 때와 남성일 때 인상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219$.

지각된 진실성

마지막으로 지각된 진실성에서는(그림 4) 주체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F(1, 222) = 1.378, p = .242, \eta_p^2 = .006$, 여성 참가자들이 남성 참가자들에 비해 기사 속 여성 주인공에 대해 더 진실성이 있다고 지각했다, $F(1, 222) = 22.958, p < .001, \eta_p^2 = .094$. 주체성과 참가자 성별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유의수준에 가까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F(1, 222) = 3.566, p = .06, \eta_p^2 = .016$.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여성 참가자들은 주체적인 피

인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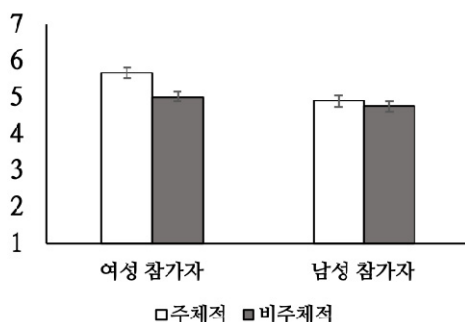


그림 3. 주체성과 참가자 성별에 따른 피해 주장 여성의 인상 평가

주. 오차 막대는 표준 오차를 의미함.

지각된 진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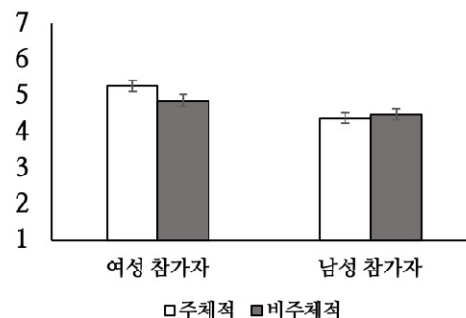


그림 4. 주체성과 참가자 성별에 따른 피해 주장 여성의 지각된 진실성 판단

주. 오차 막대는 표준 오차를 의미함.

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이지 않은 여성보다 더 진실성이 있다고 지각하였지만, $p = .029$, 남성 참가자들은 인물의 주체성에 따른 지각된 진실성 판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619$. 또한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 참가자들이 남성 참가자들보다 기사 속 여자 주인공이 더 진실성이 있다고 지각했고, $p < .001$,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지각된 진실성에서 여성이 남성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가를 하였다, $p = .043$.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주체성의 주효과는 연구의 가설(가설 1-1)과 대체로 반대로 나타났고, 참가자 성별의 조절효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방향의 결과가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가설 1-1에서 예상한 것과 반대로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을 덜 비난하고 더 긍정적인 인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효과들은 여성 참가자에 집중되었다. 참가자 성별의 효과에 있어서는 예상한 것과 일치하게 여성 참가자들은 남성 참가자들과 비교해 피해 주장 여성의 인상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진실성을 더 높게 지각하였는데, 인상에 있어서의 참가자 성별 효과는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인 경우에 한정되었던 데 반해 진실성에 있어서의 효과는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이거나 주체적이지 않은 경우 모두 관찰되었다.

가해 혐의 남성의 평가: 유무죄 및 형량 판단에 대한 주체성과 참가자 성별의 효과(가설 1-2)

유무죄 판단

유무죄 판단은 조건부 답변(피해 주장 여성

의 진술이 진실일 경우와 진실이 아닐 경우로 나누어 각각 유죄와 무죄라고 응답)을 한 참가자 14명의 자료를 제거한 212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행했다. 주체성과 참가자 성별 독립변인이 가해 혐의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대한 유무죄 판단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Hayes(2017)가 개발한 SPSS용 PROCESS 매크로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주체성과 참가자 성별, 그리고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예측변인으로, 유무죄 판단을 결과변인으로 포함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예측변인인 주체성은 비주체적인 인물 조건이 -1, 주체적인 인물 조건이 1로, 참가자 성별은 여성이 -1, 남성이 1로 입력되었다. 결과변인은 무죄가 -1, 유죄가 1로 코딩되어 입력되었다.

분석 결과, 기사 속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때 가해 혐의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유죄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회귀계수가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0.67$, $SE = 0.29$, $p = .022$ (그림 5). 이는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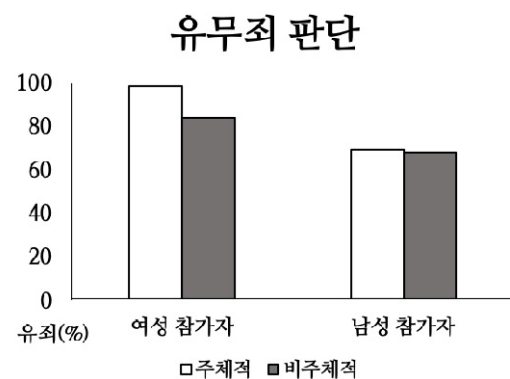


그림 5. 주체성과 참가자 성별에 따른 유죄 판단
주. 세로축은 조건별 참가자들의 유죄 판단 비율을 의미함.

속 여성이 주체적일수록 가해 혐의 남성에 대한 유죄 판단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여성 참가자들이 남성 참가자들에 비해 유죄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가에 대한 예측값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1.09$, $SE = 0.29$, $p < .001$. 이는 여성 참가자가 남성 참가자보다 가해 혐의 남성을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또한 주체성과 참가자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는 음의 방향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근접했다, $B = -0.56$, $SE = 0.29$, $p = .054$. 구체적으로 여성 참가자는 기사 속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때 비주체적으로 행동할 때에 비해 가해 혐의 자에게 유죄 판단을 더 하였지만, $p = .02$, 남성 참가자는 기사 속 여성의 주체성에 따라 유무죄 판단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62$. 또한 주체적인 피해 주장 조건과 비주체적인 피해 주장 조건을 나누어 보면 모두 여성 참가자가 남성 참가자보다 가해 혐의 남성에게 유죄를 더 주었다, 각각 $p = .002$; $p = .03$.

형량

형량 판단에서는 유무죄 판단에서 사용된 자료에서 ‘집행유예’라고 답변을 한 참가자 4명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제거하였다. 또한 현재 성폭력 사건의 최대 형량으로 인정되고 있는 징역 10년을 초과한 응답(27명)은 모두 10년형(120개월)으로 조정하였고 무죄 판단(42명)은 0개월로 입력하여 분석을 시행했다. 분석 결과(그림 6) 주체성에 의한 형량 판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 204) = 1.04$, $p = .310$, $\eta_p^2 = .005$. 반면 참가자 성별 독립변인에 의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참가자가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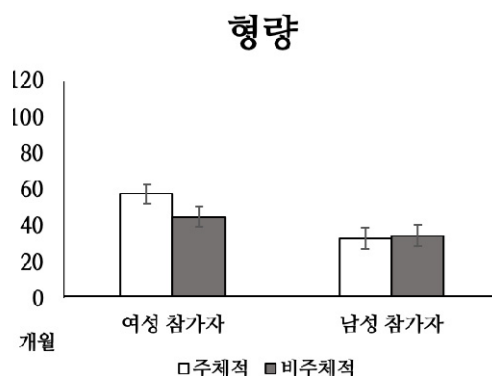


그림 6. 주체성과 참가자 성별에 따른 형량 판단
주. 오차 막대는 표준 오차를 의미함.

참가자보다 기사 속 가해 혐의 남성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형량을 더 많이 주는 경향을 보였다, $F(1, 204) = 9.93$, $p = .002$, $\eta_p^2 = .046$. 주체성 조건과 참가자 성별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204) = 1.63$, $p = .203$, $\eta_p^2 = .008$.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참가자 성별이 여자인 경우 주체성 여부에 의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p = .095$, 참가자 성별이 남자인 경우 역시 주체성 여부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859$. 기사 속 여성이 주체적일 경우에는 여성 참가자가 남성 참가자보다 형량을 높게 주었으나, $p = .002$, 주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성 참가자와 남성 참가자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p = .193$.

가해 혐의 남성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설 1-2에서 예측한 것과 반대로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때 가해 혐의 남성에게 유죄 판단을 더 많이 하였지만 이 효과는 여성 참가자들에게 집중되었다. 한편 여성 참가자들이 남성 참가자들보다 가해 혐의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유죄와 형량 판단에 있어서 전반적으

로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경향은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인 경우로 제한되었다.

지각된 피해자다움과 지각된 여성성을 통한 매개효과

주체성 조건이 기사 속 인물에 대한 피해 주장 여성 비난, 인상 평가, 지각된 진실성에 미치는 영향이 피해 주장 여성의 지각된 피해자다움과 지각된 여성성에 의해 매개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매개변인에 대한 효과는 이원 변량 분석으로, 매개 분석은 Hayes(2017)가 개발한 SPSS용 PROCESS 매크로를 사용했다. 결과를 요약하면, 피해 주장 여성에 관한 종속변인들과 가해 혐의 남성에게 관한 종속변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피해 주장 여성의 지각된 진실성에 있어서만 지각된 피해자다움을 통한 매개효과가 관찰되었다.

매개변인(지각된 피해자다움과 지각된 여성성)에 대한 주체성과 참가자 성별의 효과

지각된 피해자다움과 지각된 여성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주체성과 참가자의 성별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원 변량 분석 결과 참가자들은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때 더 피해자답지 않다고 지각했고, $F(1, 222) = 315.365, p < .001, \eta_p^2 = .587$, 참가자 성별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1, 222) = 0.025, p = .876, \eta_p^2 < .001$.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 222) = 2.35, p = .126, \eta_p^2 = .010$. 구체적으로, 여성 참가자들과 남성 참가자들은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일 때 더 피해자답지 않다고 지각했으며, 모두 $p < .001$, 피해 주장 여성이 주

체적일 때와 비주체적일 때 여성 참가자들과 남성 참가자들의 피해자다움 지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각 $p = .326; p = .238$.

한편 참가자들은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때 더 여성적이지 않다고 지각했으며, $F(1, 222) = 16.104, p < .001, \eta_p^2 = .068$, 피해자다움과 달리 참가자 성별에 따른 지각된 여성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F(1, 222) = 6.52, p = .011, \eta_p^2 = .029$.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수준에 근접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F(1, 222) = 3.43, p = .065, \eta_p^2 = .015$. 구체적으로, 여성 참가자들은 남성 참가자들에 비해 주체성에 의한 여성성 지각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p = .122$, 남성 참가자들은 피해 주장 여성이 비주체적일 때 더 여성적이라고 지각했다, $p < .001$. 또한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일 때는 여성 참가자와 남성 참가자 사이에 여성성 지각에 차이가 없었지만, $p = .617$, 피해 주장 여성이 비주체적일 때는 남성 참가자들이 여성 참가자들에 비해 여성 주인공을 더 여성적이라고 지각했다, $p = .002$. 요약하면 참가자들은 그들의 성별에 관계 없이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을 덜 피해자답다고 지각하였지만, 여성성에 있어서는 남성 참가자들이 비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을 다른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 더 여성적으로 지각하였다.

지각된 피해자다움과 지각된 여성성을 통한 매개효과(가설 2-1, 2-2)

피해 주장 여성 비난을 종속변인으로 한 매개 분석 결과, 인물의 주체성과 피해 주장 여성 비난의 관계는 지각된 피해자다움과 지각된 여성성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

개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각각 $B = 0.06$, $SE = 0.11$, 95% CI [-0.14, 0.27]; $B = 0.02$, $SE = 0.03$, 95% CI [-0.03, 0.08]. 두 매개변인의 매개효과를 통제한 피해 주장 여성 주체성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 = -0.29$, $SE = 0.13$, $t(224) = -2.21$, 95% CI [-0.56, -0.03], 총효과(매개효과와 직접효과의 합산)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0.22$, $SE = 0.09$, $t(224) = -2.54$, 95% CI [-0.38, -0.05].

인상 평가를 종속변인으로 한 매개 분석의 결과도 유사했다. 주체성 독립변인과 인상 평가 종속변인의 관계는 지각된 피해자다움과 지각된 여성성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개되지 않았다, 각각 $B = -0.15$, $SE = 0.11$, 95% CI [-0.36, 0.07]; $B = 0.01$, $SE = 0.02$, 95% CI [-0.04, 0.06]. 두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 = 0.36$, $SE = 0.12$, $t(224) = 2.96$, 95% CI [0.12, 0.60], 총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B = 0.22$, $SE = 0.08$, $t(224) = 2.86$, 95% CI [0.07, 0.38].

지각된 진실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매개 분석에서는 지각된 피해자다움을 통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관찰되었다, $B = -0.19$, $SE = 0.09$, 95% CI [-0.36, -0.02]. 참가자들은 기사 속 여성 인물이 주체적일수록 피해자답지 않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B = -1.27$, $SE = 0.07$, $t(224) = -17.84$, 95% CI [-1.41, -1.13], 피해자답지 않을수록 여성 인물의 지각된 진실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B = 0.15$, $SE = 0.07$, $t(224) = 2.26$, 95% CI [0.02, 0.28]. 지각된 여성성을 통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0.01$, $SE = 0.02$, 95% CI [-0.06, 0.03]. 반면 두 매개효과를 통제한 지각된 주체성의 직접효과는 여성 인

물이 주체적일수록 지각된 진실성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을 보여 매개효과와 반대되는 방향을 나타냈다, $B = 0.30$, $SE = 0.11$, $t(224) = 2.80$, 95% CI [0.09, 0.52]. 즉, 여성 인물이 주체적일 때 진실성이 높다고 지각된다는 변량 분석 결과와 반대로, 매개 분석에서는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여성 인물이 피해자답지 않기 때문에 주체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여성 인물보다 진실하지 않다고 평가된 것이다.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합산한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11$, $SE = 0.07$, $t(224) = 1.50$, 95% CI [-0.03, 0.24].

가해 혐의 남성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서는 지각된 피해자다움과 지각된 여성성 모두에서 매개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B = -0.21$, $SE = 0.23$, 95% CI [-0.67, 0.26]; $B = 0.02$, $SE = 0.05$, 95% CI [-0.08, 0.12], 매개효과를 통제한 주체성의 유무죄 판단에 대한 직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55$, $SE = 0.28$, $z(210) = 1.93$, 95% CI [-0.01, 1.10]. 형량 판단 역시 두 매개변인에서 모두 매개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B = -4.24$, $SE = 3.84$, 95% CI [-11.77, 3.37]; $B = 0.27$, $SE = 0.82$, 95% CI [-1.33, 1.96]. 지각된 피해자다움과 지각된 여성성 매개변인의 매개효과를 통제한 이후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B = 7.57$, $SE = 4.56$, $t(206) = 1.66$, 95% CI [-1.42, 16.55], 매개효과와 직접효과를 합산한 총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3.60$, $SE = 2.81$, $t(206) = 1.28$, 95% CI [-1.95, 9.14].

매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종속변인 중 진실성에 대해서만 피해자다움에 의한 매개 효과가 관찰되어 참가자들이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이 피해자답지

않아 덜 진실되어 보인다고 평가했음을 확인하였다. 가해 혐의 남성에 대해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참가자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설 3-1, 3-2)

대부분의 종속변인에 대해 지각된 피해자다움과 여성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에 따라 이러한 매개의 패턴이 다를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참가자의 성별이 지각된 피해자다움과 지각된 여성성의 매개효과를 조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절된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피해 주장 여성 비난 종속변인에서는 지각된 피해자다움의 매개효과를 참가자 성별이 조절하지는 않았지만, $B = -0.15$, $SE = 0.22$, 95% CI [-0.59, 0.29], 지각된 여성성의 매개효과는 참가자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13$, $SE = 0.06$, 95% CI [0.02, 0.27]. 구체적으로 여성 참

가자의 경우 지각된 여성성의 매개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B = -0.05$, $SE = 0.04$, 95% CI [-0.14, 0.29], 남성 참가자들에 있어서는 지각된 여성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B = 0.08$, $SE = 0.04$, 95% CI [0.01, 0.17]. 이러한 현상은 남성 참가자들은 피해 주장 여성이 비주체적으로 행동하여 지각된 여성성이 높다고 여겨질수록 피해 주장 여성 비난을 적게 하지만 여성 참가자들은 피해 주장 여성의 주체성에 따라 여성성을 다르게 지각하더라도 지각된 여성성에 따른 피해 주장 여성 비난에는 차이가 없음을 뜻한다.

인상 평가에서 역시 참가자 성별이 지각된 피해자다움의 매개효과는 조절하지 않았지만, $B = 0.34$, $SE = 0.22$, 95% CI [-0.08, 0.78], 지각된 여성성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11$, $SE = 0.05$, 95% CI [-0.23, -0.02]. 인상 평가에서는 여성 참가자에서 지각된 여성성에 의한 매개효과가 관찰되었으며, $B = 0.06$, $SE = 0.04$, 95% CI [0.00, 0.14], 남성 참가자에서는 매개

표 3. 참가자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a	b여	ab여 { }	c여	c'여
	b남	ab남 { }	c남	c'남
주체성 -> 여성성 -> 비난				
-0.33**	0.14	-0.05 [-0.14, 0.03]	-0.49	-0.44*
	-0.24*	0.08 [0.01, 0.17]	-0.23	-0.31
주체성 -> 여성성 -> 인상 평가				
-0.33**	-0.18*	0.06 [0.00, 0.14]	0.76	0.70*
	0.16	-0.05 [-0.13, 0.01]	0.13	0.18

** $p < .01$, * $p < .05$.

주. 표 안에 표기된 알파벳은 그림 1에 표시된 각각의 가설 경로를 나타낸다.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B = -0.05$, $SE = 0.04$, 95% CI [-0.13, 0.01]. 즉, 여성 참가자들은 피해 주장 여성이 여성적으로 관찰될수록 긍정적인 인상 평가를 덜 하였지만, 남성 참가자들은 피해 주장 여성의 여성성에 따라 인상 평가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지각된 진실성에서는 지각된 피해자다움과 지각된 여성성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참가자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절하지 못했다, 각각 $B = 0.24$, $SE = 0.17$, 95% CI [-0.08, 0.59]; $B = -0.05$, $SE = 0.04$, 95% CI [-0.15, 0.03].

반면 유무죄 판단 및 형량 판단 종속변인에서는 지각된 피해자다움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참가자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B = -0.11$, $SE = 0.83$, 95% CI [-1.43, 1.07]; $B = 9.28$, $SE = 8.09$, 95% CI [-5.81, 25.97], 지각된 여성성의 매개효과 역시 참가자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B = 0.07$, $SE = 0.12$, 95% CI [-0.12, 0.33]; $B = -0.88$, $SE = 1.63$, 95% CI [-4.41, 2.12].

참가자 성별에 의한 조절된 매개 효과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해 주장 여성 비난과 인상 평가에 대해서 여성성 매개변인에 의해서만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진실성과 가해 혐의 남성에 대한 유무죄, 형량 판단 종속변인에서는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피해 주장 여성이 비주체적으로 행동하여 지각된 여성성이 높다고 여겨질수록 남성 참가자들은 피해 주장 여성 비난을 적게 하였고 여성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인상 평가를 덜 하였지만 각각 반대 성별에서는 해당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한다고 묘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자들이 그 여성, 그리고 가해 혐의를 받는 남성을 평가하는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피해자다움에 대한 심리학과 여성학 등에서의 선행 연구를 기초로,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때 그 여성을 더 부정적으로, 가해 혐의 남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이런 양상은 특히 남성 참가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이런 결과는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이 덜 피해자답고 덜 여성적으로 지각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예상과 달리 종속변인인 피해 주장 여성 비난과 인상 평가에서 성별과 실험 조건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설과 반대 방향으로 두 변인에 대한 실험 조건의 유의한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즉 참가자들은 주체적인 행동을 보이는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을 덜 비난하고, 더 긍정적인 인상을 가졌다. 인상 평가에서는 성별의 주효과도 유의하여 여성 참가자들이 기사 속 여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지각된 진실성의 경우 성별과 실험 조건의 유의 수준에 근접한 상호작용효과가 관찰되었다. 또한 실험 조건의 주효과는 없었지만 성별의 주효과는 있어 여성 참가자들이 대체로 기사 속의 여성을 더 진실하다고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변인에서 실험 조건과 성별의 일관된 상호작용효과나 주효과는 없었지만 Bonferroni 교정법을 사용한 단순주효과 분석에서 피해 주장 여성 비난과 인상 평가, 지각된 진실성의 세 변인 모

두에서 일관적인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성 참가자들은 주체적으로 묘사된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을 덜 비난하며, 인상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진실성을 더 높이 평가했다. 이는 대상이 보이는 주체적 행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효과가 여성 참가자들에게서만 나타난 것으로, 남성 참가자들에게서는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것은 남성 참가자들이 여성 참가자들보다 주체적인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1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가해 혐의 남성에 대한 판단 역시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판단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유무죄 판단에서는 실험 조건과 성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 수준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실험 조건과 성별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여성 참가자가 남성 참가자보다, 그리고 주체적인 여성 조건보다 비주체적인 여성 조건의 참가자들이 가해 주장 남성에게 더 많이 유죄를 주었다. 단순주효과 분석에서는 여성 참가자는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일 때 가해 주장 남성에게 더 유죄를 많이 주었지만 남성 참가자는 주체성에 의한 유죄 판단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여성 참가자가 남성 참가자보다 피해 주장 여성의 주체성에 상관없이 가해 주장 남성에게 더 많은 유죄를 주었다. 형량 판단에서는 상호작용효과와 실험 조건의 주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성별의 주효과는 발견되었으며,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를 통해 여성 참가자가 기사 속 여성이 주체적일 경우에 남성보다 형량을 높게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유죄와 형량 판단과 관련한 분석에서도 가설 1-2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 주장 여성의 주체성이 피해 주장 여성과 가해 혐의 남성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피해 주장 여성의 지각된 피해자다움과 지각된 여성성이 매개할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 2-1과 2-2를 검증하기 위한 매개 분석 결과, 지각된 진실성 종속변인에서만 지각된 피해자다움의 부적 매개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연구가설 2-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주체적으로 묘사된 여성의 피해자다움이 낮게 평가되고, 이것이 그 여성의 진실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참가자의 성별이 지각된 피해자다움과 지각된 여성성의 매개효과를 조절하였을 것으로 예상한 가설 3-1과 3-2는 피해 주장 여성 비난과 인상평가 종속변인에서, 여성성 매개변인을 통한 효과만 부분적으로 가설을 지지했다.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이지 않을 때 그 여성의 여성성을 높게 지각하고, 그를 통해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비난을 더 적게 하는 현상은 남성 참가자들에게서만 나타났으며,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때 여성성을 낮게 지각하고, 그를 통해 긍정적으로 인상을 평가하는 현상은 여성 참가자들에게서만 나타나 참가자 성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하자면, 참가자들은 주체적으로 묘사된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을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거나(피해 주장 여성 비난, 인상 평가) 주체적이지 않은 피해 주장 여성과 다르지 않게(지각된 진실성) 판단했다. 반면 여성들은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을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연구가설 1-1, 1-2와 부합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주체적인 행동 묘사가 낮은 지각된 피해자다움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낮은 지각된 진실성으로 이

어지는 부적인 매개효과도 일부 발견할 수 있었으며 피해 주장 여성 비난과 인상평가에서도 여성성에 의한 참가자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발견하여 가설 2-1과 3-1이 부분적으로 뒷받침되었다.

그렇다면 왜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일수록 더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가해 혐의 남성은 더 낮은 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가설과 반대의 결과가 관찰되었을까? 첫째로,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주체적으로 묘사된 여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체적인 사람은 많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주체성은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특성으로 여겨지며(Trapnell & Paulhus, 2012), 그러므로 이 연구의 결과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는 주체성이라는 변인이, 남성 집단에서 그 효과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은 그 당사자가 가진 주체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주체적이지 않은 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나, 주체적인 여성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성폭력 피해자’에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그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하여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의 지각된 피해자다움이 낮게 평가되면서 그것이 피해 주장 여성 주장의 지각된 진실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본 연구의 매개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사 속 여성의 주체적 행동은 주체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여성들에게서 그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지만, 남성들에게서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특성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

는 부정적 평가가 그 긍정적 효과를 상쇄하여 아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피해 주장 여성들이 감정적으로 더 슬퍼하거나 화를 내는 것을 피해자다운 모습으로, 침착하고 절제된 감정 또는 행동을 피해자답지 않은 모습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다움에 대한 연구를 하였던 반면 (Schuller et al., 2010; Winkel & Kopperlaar, 1991), 본 연구에서는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모습(비주체성 조건)과 자신의 주장을 더 주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행동(주체성 조건)을 대조시켰다. 선행연구와 같이 주체성 조건은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이 마치 신체적,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여성의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진실성에 의심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피해 주장 여성이 감정적 동요는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피해 사실 자체를 강하게 피력을 하는 것이 정말 피해를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을 수 있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이 감정적으로는 피해자답지 않았지만 인지적으로는 자신이 진짜 피해자라는 것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 가설과 다른 결과가 도출된 이유 중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감정적으로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이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아닌, 피해자가 진짜로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보이는지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성 참가자들의 경우 주체성 조건에 따라 종속 변인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피해 주장 여성의 감정적 주장과 이성적 주장 모두에 같은 크기로 진실성 판단의 중요도나 선호도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 참가자들의 경우는 감정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성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피해 주장 여성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이나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선호도의 판단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참가자들, 특히 남성 참가자들에게서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성범죄에서 여성들은 주로 피해 주장 여성에, 남성들은 가해 혐의 남성에 감정 이입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특히 남성들이 ‘피해자답지 않은’ 피해 주장 여성을 비난하고, 피해 주장 여성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이유가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남성 참가자들은 가해 혐의자에 대한 감정 이입을 드러내거나 피해 주장 여성을 비난하는 것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 없이 드러내기가 어려웠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미혜(2011)의 연구에서 대학생 집단의 성차별의식에 남/녀 간 성차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모두 비교적 젊은 대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고정관념 수준이 나이가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나 미투 운동 등의 영향으로 젊은 층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기성 세대와 차이를 갖게 되고, ‘피해자다움’의 고정관념을 거부하며 2차 가해를 염려하는 등 일반인들에 비해 더 진보적이고 성평등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일 수도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다른 연령대에서는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이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는지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록 모든 연구가설이 확인되지는 못했지만, 본 연구는 ‘피해 주장 여성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비난, 인상평가와 진실성 평가, 나아가 가해 혐의자의 유무죄 판단과 형량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현실적 의의가 있다. 이것은 사회학 또는 여성학에서 꾸준히 지적해온,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자다움’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받고 이것이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권인숙, 2015; 김민정, 양정운, 2015)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다움과 상반되는 특성으로 설정한 주체성을 가진 피해 주장 여성이 오히려 여성 참가자들에게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남성 참가자에게서는 두 조건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 등, 연구가설과 반대되는 효과들이 발견되었고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는 부분적으로만 도출이 되었다. 하지만 피해자답지 않은 여성의 모습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학문 분야와 미디어에서 제기하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에 국한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 변인들 간의 복잡한 관계들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 반면에 기존의 문헌들이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의 행동이 지각된 피해자다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피해 주장 여성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는 매개효과가 또한 발견된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다움과 피해자 주장의 지각된 진실성의 관계가 더 드러날 수 있는 특성을 실험 조건에 배치함으로써 이 현상을 더 잘 포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특성으로 여겨져 반대의 효과를 보였던 ‘주체성’의 특성 대신에 가치 중립적 특성, 예를 들어 ‘(슬프거나 억울한) 감정이 잘 드러나는’ 등의 특성을 피해 주장 여성이 보이는 것으로 묘사하여 실험을 진행한다면 연구가설과 일치하는 효과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상관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변인들 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확인한 변인들의 인과 관계가 사실은 더 복잡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비난과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인상 평가가 순차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있으며, 그것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로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변인 간의 설명 가능한 다양한 경로를 확인하고, 그들의 복잡한 관계를 규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왜 여성들이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에게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그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매개변인의 역할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 참가자들이 주체성을 가진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긍정적 판단을 했다는 점은 여성들도 피해 주장 여성의 태도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피해 주장 여성이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할 때에 비난

하는 현상은 남성에게 더 두드러질 수 있지만 (Grubb & Harrower, 2008), 오히려 피해 주장 여성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보일 때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그 행동에 따른 판단 변화를 더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기제를 확인해 보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때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거나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게 되어 호감을 느꼈을 수 있다. 더하여 남성 참가자들의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남성들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 감정 이입하는 정도를 알아보고, 이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과 답변 거부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후속 연구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대학생 등 제한적인 집단이 아닌 다양한 연령대와 인구통계학적 기반을 가진 일반 성인 남녀로 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인숙 (2015). 성폭력 피해에 관한 다양한 통념 비판.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란 없다. 3-43. 4월 2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권혜수 (2007).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4),

- 53-82.
- 김민정, 양정운 (2015). 성폭력 피해의 극복가능성: 피해, 생존, 그리고 성장.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란 없다. 47-67. 4월 2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김훈남 (2013). “성폭행 어떻게?” 피해女 법정 증언후 자살하자….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12413447>
- 여성가족부 (2016).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 조사결과보고서.
- 이하나 (2019). 강력범죄 피해자 90%는 여성… 서울 여성 2명 중 1명 “불안하다”.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792>
- 정로사, 김태경 (2017). 아동기 성폭력 피해의 비폭로 요인 - 폭로하지 않은 채 성인이 된 여성들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4(4), 121-151.
- 심미혜 (2011).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성차별의식 및 군대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1), 1-17.
- 추지현, 권인숙 (2017). 가해자와의 관계가 피해자의 성폭력후유증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48, 179-203.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7).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 허민숙 (2016). 성폭력 무고의 재해석. 한국여성학, 32(2), 1-29.
- 허민숙 (2017).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기소를 통해 본 수사과정의 비합리성과 피해자다움의 신화. 한국여성학, 33(3), 1-31.
doi:10.30719/JKWS.2017.09.33.3.1
- 허선주, 조은경 (2012).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20(1), 381-415.
- Amaka-Okafor, V. (2013, January 14). Nigeria has a rape culture too. *Guardian Africa Network*.
- Argyle, M. (1994). *The psychology of social clas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An essay on psychology and religion*. Oxford, UK: Rand McNally.
- Benedict, H. (1993). *Virgin or vamp: How the press covers sex crimes*. New York, NY, US: Oxford University Press.
- Bongiorno, R., Langbroek, C., Bain, P. G., Ting, M., & Ryan, M. K. (2020). Why women are blamed for being sexually harassed: The effects of empathy for female victims and male perpetrato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44(1), 11-27. doi:10.1177/0361684319868730
- Bongiorno, R., McKimmie, B. M., & Masser, B. M. (2016). The selective use of rape-victim stereotypes to protect culturally similar perpetrato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40(3), 398-413.
doi:10.1177/0361684316631932
- Buddie, A. M., & Miller, A. G. (2001). Beyond rape myths: A more complex view of perceptions of rape victims. *Sex Roles*, 45(3-4), 139-160. doi:10.1023/A:1013575209803
- Butler, D., & Geis, F. L. (1990). Nonverbal affect responses to male and female leaders: Implications for leadership eval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1), 48-59. doi:10.1037/0022-3514.58.1.48

- Bryant, S. A., & Spencer, G. A. (2003).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about attributing blame in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8(6), 369-376. doi:10.1023/A:1026205817132
- Calhoun, L. G., Cann, A., Selby, J. W., & Magee, D. L. (1981). Victim emotional response: Effects on social reaction to victims of rap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1), 17-21. doi:10.1111/j.2044-8309.1981.tb00468.x
- Calhoun, L. G., Selby, J. W., & Warring, L. J. (1976). Social perception of the victim's causal role in rape: An exploratory examination of four factors. *Human Relations*, 29(6), 517-526. doi:10.1177/001872677602900602
- Capezza, N. M., & Arriaga, X. B. (2008). Factors associated with acceptance of psychological aggression against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14(6), 612-633. doi:10.1177/1077801208319004
- Christie, N. (1986). The ideal victim. In E. A. Fattah (Ed.) *From crime policy to victim policy*. London, UK: Palgrave Macmillan. doi:10.1007/978-1-349-08305-3_2
- Cook, B., David, F., & Grant, A. (2001). *Sexual violence in Australia*. Canberra, Australia: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Grubb, A., & Harrower, J. (2008). Attribution of blame in cases of rape: An analysis of participant gender, type of rape and perceived similarity to the victim.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3(5), 396-405. doi:10.1016/j.avb.2008.06.006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Howard, J. A. (1984). The "normal" victim: The effects of gender stereotypes on reactions to victim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3), 270-281. doi:10.2307/3033824
- Johnson, J. D., Jackson, L. A., & Smith, G. J. (1989). The role of ambiguity and gender in mediating the effects of salient cogni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1), 52-60. doi:10.1177/0146167289151005
- Jordan, J. (2001). Worlds apart? Women, rape and the police reporting process.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1(4), 679-706. doi:10.1093/bjc/41.4.679
- Kalu, W. (2004). Violence against women in Africa: Impact of culture on womanhood. In L. Adler, & F. Denmark (Ed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Violence* (pp. 185-213). Westport, CT, US: Praeger Publishers.
- Kleinke, C. L., & Meyer, C. (1990). Evaluation of rape victim by men and women with high and low belief in a just world.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4(3), 343-353. doi:10.1111/j.1471-6402.1990.tb00024.x
- Koch, S. C. (2005). Evaluative affect display toward male and female leaders of task-oriented groups. *Small Group Research*, 36(6), 678-703. doi:10.1177/1046496405281768
- Krulewitz, J. E. (1982). Reactions to rape victims: Effects of rape circumstances, victim's emotional response, and sex of help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6), 645-654. doi:10.1037/0022-0167.29.6.645
- Masser, B., Lee, K., & McKimmie, B. M. (2010).

- Bad woman, bad victim? Disentangling the effects of victim stereotypicality, gender stereotypicality and benevolent sexism on acquaintance rape victim blame. *Sex Roles*, 62(7-8), 494-504.
doi:10.1007/s11199-009-9648-y
- McGregor, M. J., Wiebe, E., Marion, S. A., & Livingstone, C. (2000). Why don't more women report sexual assault to the police? *CMAJ*, 162(5), 659-660.
doi:10.1016/j.jemermed.2007.10.077
- Meston, C. M. (1999). Attitudes toward rape: Feminist and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8(5), 444-446.
- Petty, R. E., Briñol, P., & Tormala, Z. L. (2002). Thought confidence as a determinant of persuasion: The self-validation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5), 722. doi:10.1037/0022-3514.82.5.722
- Prentice, D. A., & Carranza, E. (2002). What women and men should be, shouldn't be, are allowed to be, and don't have to be: The contents of prescriptive gender stereotyp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4), 269-281.
doi:10.1111/1471-6402.t01-1-00066
- Rudman, L. A., & Kilianski, S. E. (2000).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s toward female author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11), 1315-1328. doi:10.1177/0146167200263001
- Rudman, L. A., Moss-Racusin, C. A., Phelan, J. E., & Nauts, S. (2012). Status incongruity and backlash effects: Defending the gender hierarchy motivates prejudice against female lead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1), 165-179. doi:10.1016/j.jesp.2011.10.008
- Rudman, L. A., & Phelan, J. E. (2008). Backlash effects for disconfirming gender stereotypes in organiz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8, 61-79.
doi:10.1016/j.riob.2008.04.003
- Schneider, L. J., Ee, J. S. C., & Aronson, H. (1994). Effects of victim gender and physical vs. psychological trauma/injury on observers' perceptions of sexual assault and its aftereffects. *Sex Roles*, 30(11-12), 793-808.
doi:10.1007/BF01544232
- Schuller, R. A., McKimmie, B. M., Masser, B. M., & Klippenstine, M. A. (2010). Judgments of sexual assault: The impact of complainant emotional demeanor, gender, and victim stereotypes. *New Criminal Law Review: I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Journal*, 13(4), 759-780. doi:10.1525/nclr.2010.13.4.759
- Spence, J. T., Helmreich, R. L., & Holahan, C. K. (1979). Negative and positive components of psychological masculinity and femininity and their relationships to self-reports of neurotic and acting out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0), 1673-1682.
doi:10.1037/0022-3514.37.10.1673
- Stewart, M. W., Dobbin, S. A., & Gatowski, S. I. (1996). "Real rapes" and "real victims": The shared reliance on common cultural definitions of rape. *Feminist Legal Studies*, 4(2), 159-177.
doi:10.1007/BF02167608
- Terman, L. M., & Miles, C. C. (1936). *Sex and personality: Studies in masculinity and femininity*. New York, NY, US: McGraw-Hill.
- Thapan, M. (1997). *Embodiment: Essays on gender and identity*. New Delhi, India: Oxford

- University Press.
- Trapnell, P. D., & Paulhus, D. L. (2012). Agentic and communal values: Their scope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4(1), 39-52.
doi:10.1080/00223891.2011.627968
- Valenti, J. (2009). *The purity myth: How America's obsession with virginity is hurting young women*. Berkeley, CA, US: Seal Press.
- Wiggins, J. S. (1991). Agency and communion as conceptual coordinates for the understanding and measurement of interpersonal behavior. In D. Cicchetti, & W. M. Grove (Eds.), *Thinking clearly about psychology: Essays in honor of Paul E. Meehl. Vol. 2: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pp. 89-113). Minneapolis, MN, U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Winkel, F. W., & Koppelaar, L. (1991). Rape victims' style of self-presentation and secondary victimization by the environment: An experim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1), 29-40. doi:10.1177/088626091006001003
- Workman, J. E., & Freeburg, E. W. (1999). An examination of date rape, victim dress, and perceiver variables within the context of attribution theory. *Sex Roles*, 41(3-4), 261-277.
doi:10.1023/A:1018858313267
- 논문 투고일 : 2020. 05. 06
1 차 심사일 : 2020. 05. 14
게재 확정일 : 2020. 07. 15

Perception of women who claim sexual assault: The effects of agency and perceivers' gender

Chan Young Jung¹⁾ Hyeon Jeong Kim¹⁾ Tae Kyoung Kim²⁾ Sang Hee Park¹⁾

¹⁾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Woosuk University

In this study, we tested the hypothesis that a woman who claims sexual assault would be evaluated more negatively, and the suspected man would be judged more leniently, when the woman is agentic. In addition, we expected that this phenomenon would occur because the agentic accuser does not conform to the 'sexual crime victim' stereotype or feminine norms, and considered these as mediator variables. We also postulated that male (vs. female) participants would have a less positive regard of the agentic accuser and tested participant gender's moderating effects. Contrary to our hypothesis, participants criticized the agentic (vs. non-agentic) woman who claims sexual assault less and perceived her more positively and truthfully, and more likely to judged the suspected man to be guilty and recommended longer sentences. However, we observed the expected moderating effects of participant gender, so that male (vs. female) participants evaluated the agentic accuser more negatively. Mediation analyses yielded results on perceived truthfulness that were consistent with our hypothesis: Participants thought of agentic accuser as less feminine, which predicted less perceived truthfulness. Also, the less the agentic accuser was perceived to be feminine, male participants blamed her more while female participants had more positive impressions of her.

Key words : sexual assault, victim stereotype, victim blame, agency, gender difference